카자흐스탄의 농업 현황 및 시사점*

최 민 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국가 현황

1.1. 국가 개관[1)]

카자흐스탄은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가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에서 북서쪽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6,467㎞)이 러시아와 맞닿아 있고,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과는 남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동부에는 중국이 위치해 있어 카자흐스탄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잇는 최적의 위치이다<그림 1 참조>.

카자흐스탄은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장기집권과(1989년~현재) 안정된 정치체제, 급속한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신흥부국이다. 또한 자원 매장량 기준 원유 세계 12위, 가스 세계 22위, 텅스텐 세계 1위, 크롬 세계 2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원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매우 활발하여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선진화된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다. 카자

---

* (choimj@krei.re.kr) 본고는 OECD가 2013년 발간한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Kazakhstan 2013* 에서 농업 일반 환경 및 정책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1)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그림 1 카자흐스탄 지도

자료: 네이버 지도 검색 (2012).

표 1 카자흐스탄 개황

일반	위치	중앙아시아
	면적	272만 5,000 km²
	수도	Astana
	기후	대륙성
	인구	1,790만 명 ('14)
	민족	카자흐인 (63%), 러시아인 (24%), 우즈베크인 (3%) 우크라이나인 (2%)
	언어	카자흐어 (공용어), 러시아어
	종교	이슬람교 (70%), 러시아정교 (26%)
정치		1991. 12. 16 (구소연방)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 (Karim Masimov 총리)
	의회	양원제 (상원 47석, 하원 107석)
	주요정당	조국당 (Nur Otan), 공산당 (KPK), 아크졸당 (Ak Zhol)
경제	GDP	2,256억 달러 ('14)
	1인당GDP	2,950 달러 ('14)
	화폐단위	Tenge (KZT)
	회계연도	(1. 1.～12. 31)
	산업구조	('13) 서비스업 57%, 제조업 38%, 농업 5%
	주요수출품	'13) 석유제품, 천연가스, 금속류, 식료품, 화학제품, 기계류
	주요수입품	'13) 기계·설비, 금속류, 식료품
	주요부존자원	석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망간, 구리, 주석, 우라늄
	국제기구가입	ADB, EBRD, IAEA, IDB, IMF, MIGA, UN 등
	국제신인도	OECD 5등급, S&P BBB+, Moody's Baa2, Fitch BBB+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5).

흐스탄의 면적은 세계 9위이며, 한반도의 12.2배인 272만 5,000㎢로 서유럽 면적과 비슷한 크기인데 반해 인구는 총 1,709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적은 인구 밀도를 보이는 나라 중 하나이다. 카자흐스탄은 약 130종류 이상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며 카자흐인이 63%로 가장 많고, 러시아인 24%, 우즈베크인 3%, 우크라이나인 2%로 이루어져 있다<표 1 참조>.

1.2. 지형과 기후[2)]

1.2.1.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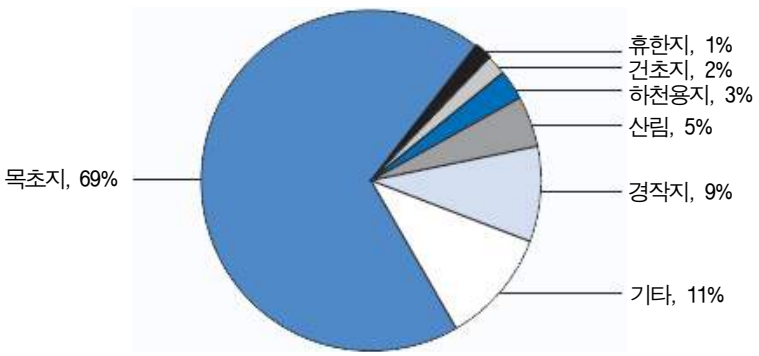
카자흐스탄은 산악지역 12.4%, 숲과 초원지역 9.4%, 반사막지역 33.2%, 사막 44%로 이루어져 지형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산악지역인 동, 남부와 동북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평지로 사막과 스텝지역(Steppes)[3)]이 전체 면적의 40%이상을 차지한다. 천산산맥의 북단이 위치한 동, 남부 지역에는 해발 4,500m 이상의 산이 분포해 있으며, 북동부에는 알타이산(Altay Sahn), 남동에는 천산(Tian Shan), 북서부에는 우랄(Ural) 산악지역이 있고 중부에는 광활한 사막과 스텝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과 국경을 이루는 카자흐스탄 동부지역은 카자흐스탄 알타이 산맥 남단에 위치하여 해발고도는 2,000~3,000m에 이르는 산악지대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부 지역은 대부분 스텝지역으로 시베리아와 기후가 유사하고 비옥한 토양과 다양한 기후로, 밀 등 곡물재배가 활발하다.[4)] 북부 이남에서 남부에 이르는 영토는 사막 지역으로 경작이 불가능하고 중부에는 모래고원이 있어 축산업이 발달하였다. 북부지역은 밀 중심의 곡물생산, 중부에서는 광물과 축산업, 남부는 면화, 동부지역은 유지작물, 서부지역에는 석유와 가스 생산이 주로 이루어진다. 카자흐스탄은 넓은 토지면적에 비해 경작지는 전체 토지면적의 10% 이하로 비중이 낮은 편이며, 약 70%가 목초지이다. 1인당 경작지 이용가능면적(availability per inhabitant)은 1.5ha로 호주 다음으로 1인당 경작가능이용면적이 높은 나라이다<그림 2 참조>.

2) (http://faostat.fao.org/CountryProfiles/Country_Profile/Direct.aspx?lang=en&area=108).

3) 러시아와 아시아의 중위도 부근에 위치한 초원지대를 말한다. 사막지역과 습윤지역의 점이지대에 위치하므로 단초와 장초가 나타남. 스텝기후는 사막보다 강수량이 많아 250~500㎜ 정도로 건계와 우계가 명확히 구분됨. 토양은 건조지역보다 비옥하여 검은색을 띠며 풀은 부식층(humid)을 형성하여 토양의 침식을 막고 식물의 양분 공급원이 됨. 북미의 대평원, 시베리아 남부, 우크라이나의 흑토대, 건조 팜파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스텝 등지에서는 목양이나 밀을 생산함. (네이버 자연지리학 사전, 2006.6.25., 한울아카데미).

4) Geographic.org (http://www.geographic.org).

그림 2 2011년 카자흐스탄 토지 구성



자료: OECD (2013).

1.2.2. 기후

카자흐스탄은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있고, 구릉지가 많아 대륙성 기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1월 기준, 북부의 겨울은 길고 추우며(평균기온 -18℃) 남부는 온난한 편이다(평균기온 -3℃). 여름은 보통 길고 건조하며 북부의 7월 평균기온은 20~24℃인데 반해 남부는 무더운 날씨로 28~30℃의 평균기온을 보인다. 강우량은 전반적으로 적은 편인데, 연평균 강수량은 북부가 약 250㎜, 남부 산악지대가 450㎜이고 사막지역은 비가 훨씬 적게 내린다. 카자흐스탄은 계절별, 연도별 고르지 않은 강수량과 지역별 강수 분포로 인해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농업은 물을 이용하는 주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90% 이상의 물은 남부지역의 관개 수로를 통해 보급되고 있으며 50~70%의 물은 곡물 농업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관개수로의 이용은 카자흐스탄 국가 전체의 물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건조기후의 산림 부족 국가로 사막화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5)]

1.3. 경제

1.3.1. 경제 일반

농업은 전통적으로 카자흐스탄 경제의 기반산업이었다. 카자흐스탄인은 유목민족으로 양모생산과 축산업을 주로 해왔으며, 전통적으로 면화는 카자흐스탄의 주요 핵심 작물이었다(임정빈 2010). 1990년대 카자흐스탄의 독립 이후 급격한 석유산업의 성장

5) (http://waterjournal.blog.me/110153456019)

으로 전체 GDP의 34%를 차지하던 농업이 2014년에는 약 5%로 감소했으나, 전체 고용기준 농업 비중이 24.2%를 차지하고 있고, 농촌지역 거주 비율이 46.7%[6]임을 감안한다면 농업은 여전히 카자흐스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카자흐스탄은 정치적 안정과 자원 산업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GDP 성장률 평균 10%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있었으며 2015년에는 경제성장률 4.7%[7]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부존자원 가격의 상승, 외국인 투자의 증가의 영향으로 2014년 GDP는 2,256억 달러, 1인당 GDP 1만 2,950달러[8]를 기록하였다. 카자흐스탄은 2015년까지 '산업발전 혁신전략(Innovative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을 수립하

표 2 카자흐스탄 주요 경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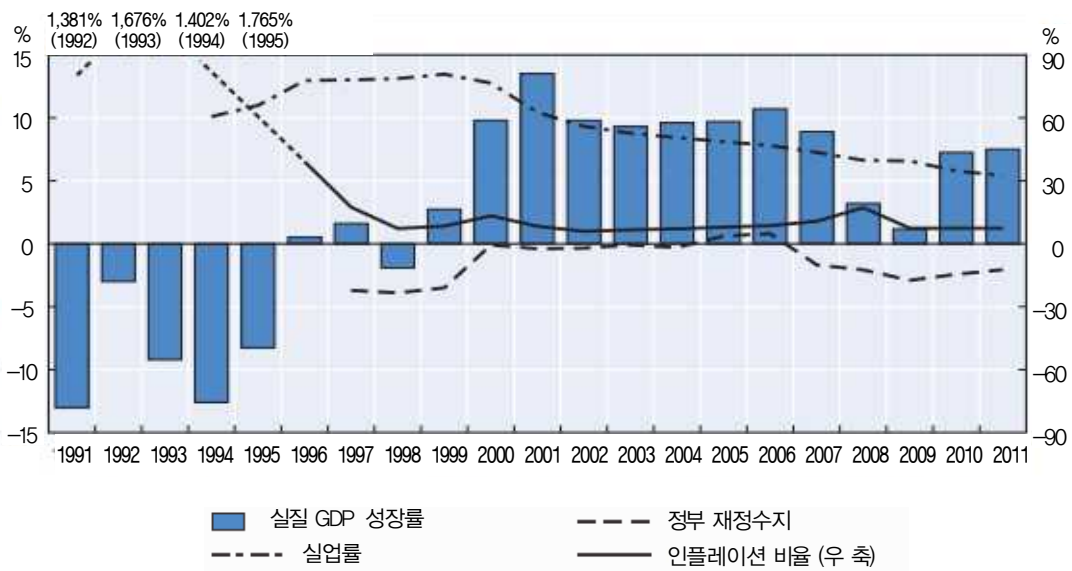
구분(단위) \ 연도		2010a	2011a	2012a	2013a	2014c
인구(만 명)		1,644.0	1,667.0	1,690.1	1,716.5	1,740.0
GDP	총액(억 텡게)	218,155	275,718	303,469	335,211	390,740
	(억 달러)	1,480	1,880	2,035	2,203	2,516
	성장률(%)	7.3	7.5	4.9	6.0	5.0
	1인당 GDP(달러)	9,070	11,356	12,118	12,933	15,218
인플레이션(%)		7.8	7.4	6.0	4.8	6
달러당 평균 환율		147.40	148.04	150.27	153.61	184.32
대출기준금리(%)		8.2	6.7	6.6	6.3	9.5
무역 (백만 달러)	교역량	91,397	121,241	132,807	131,384	–
	수출	60,270	84,335	86,448	82,511	–
	수입	31,126	36,905	46,358	48,872	–
	무역수지	29,144	47,430	40,090	36,639	–
총외채(백만 달러)		119,114	124,316	137,014	147,714	154,136
회계지표 (%/GDP)	세입	19.7	19.5	19.2	18.6	21.2
	세출	20.4	19.7	20.7	19.9	23.3
	수지	–0.7	–0.2	–1.5	–1.4	–1.9
	공공부채	14.8	12.3	13.0	14.3	14.2
실업률(총인구대비,%)		5.8	5.4	5.3	5.2	5.2
외환보유고(백만 달러) (국가펀드포함)		28,275 (59,255)	29,328 (72,953)	28,269 (86,196)	24,678 (95,222)	34,295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5) (a: 실제치, b: 전망치, c: 예상치).

6) (http://faostat.fao.org/CountryProfiles/Country_Profile/Direct.aspx?lang=en&area=108)
7) 한국수출입은행.
8) 한국수출입은행 국가별 개황 카자흐스탄 (2015.01.12.)

여 석유화학, 건축, 물류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자원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자 제조업, 첨단기술, 농업 등 다분야를 발전시키려는 산업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석유제품, 천연가스, 금속류, 식료품, 화학제품, 기계류가 있으며 수입품으로는 기계, 설비, 금속류, 식료품 등이 있다<표 2 및 그림 3 참조>.

그림 3 1991~2001년 카자흐스탄 주요 경제 지표



자료: OECD (2013).

1.3.2. 경제 정책의 변화

소련 시절 카자흐스탄 경제는 원재료 생산 중심의 산업구조로서, 금속가공 분야 이외에는 제조업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 1990년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의 텡기스(Tengiz) 유전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은 사회기반시설 및 파이프라인의 부족으로 주요 석유, 가스의 수출국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1년 소련해체와 독립이후,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 산업 체계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두 가지 양상을 보였다.

(1) 1992~1999년: 전환기적 경기 침체와 구조적 개혁의 시작

1990년대 카자흐스탄은 중앙계획경제체제의 종료, 소련의 붕괴,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기 침체를 겪었다. 1992년 러시아가 가격 자유화(Russia's price liberalisation)

를 발표하고 루블존(Ruble Zone)이 붕괴되고 나서야 카자흐스탄은 경제개혁을 시도 하여 1993년에 자국통화 텅(KZT)을 발행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경기침체는 계속되었고, 1995년의 실질 GDP는 1991년 대비 5분의 2가량 감소하였다. 당시 농업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산업이었고, 많은 사람이 농촌으로 이주하였다. 또한 1990년대는 시장경제로 전환한 시기로 1991년에는 농경지개혁을 하는 등 소유권 개혁에서도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비록 카자흐스탄이 기업구조 개편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지만, 기업의 소규모 민영화(small-scale privatization of enterprises)가 이루어졌고 대규모의 민영화 또한 상당수 이루어졌다. 1996~1997년에는 카자흐스탄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를 통한 경제 전환점을 마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당량의 자원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가 시작되었다. 이처럼 카자흐스탄은 1996년 경제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1998년 러시아발(發) 경제위기로 영향을 받았고, 1999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며 경제다각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게 되었다.

(2) 1999년 이후~현재: 자원 산업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카자흐스탄 경제에는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 파이프라인 건설과 동시에 석유산업이 활발해졌고, 세계적인 석유가격 상승으로 인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석유와 가스 산업으로 인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타 산업분야의 GDP 비중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켰고 성장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국부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해외투자에 집중하였고, 경제다각화 정책을 통하여 네덜란드병(Dutch Disease)[9]과 같은 자원 의존적 산업구조로 인한 환율하락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와 에너지 수출의 급등으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2030년까지의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경제 계획을 수립하였다. 자원에서 얻는 수입은 저축하고, 인적자본에 투자 증대, 생산구조의 다양화를 목표로 삼았다. 2000년 초반에는 2003~2005년 시행될 10억 달러 규모의 '2003~2005 농업·식품 계획(Agriculture and Food Program for 2003~2005)',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03-2015 산업발전 혁신전략 (Innovative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for 2003~2015)'을 수립하였다. 또한 2006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10년 안에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 50위'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

9) 자원에 거의 의존해 급성장을 이룩한 국가가 이후 물가 상승 및 환율 하락(통화가치 상승)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잃고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현상. 자원의 저주라 불리기도 함.(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전하는 국가'를 목표로 삼았고, 이에 세 기구가 탄생하였다. 삼룩(Samruk)공립회사, 카지나(Kazyna)지속가능개발펀드,[10] 지역금융센터인 알마티(Almaty, RFCA)가 설립되는 등 2000년대 들어서는 보다 생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부 개입을 통한 경제발전 정책[11]은 카자흐스탄 국민의 생활수준향상과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가져왔으며, 2007년 부동산 버블 당시에도 국부펀드 덕분에 은행위기를 벗어나 경제위기도 피할 수 있었다. 정부중심의 경제 정책 중 하나로 국영기업이 통합되기도 하였다. 그 예로 2002년 한 국영 에너지기업은 외국자본 투자 유치 및 국내 기업과의 합작을 용이하게 하고, 국내 경제 발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카자흐스탄의 유일한 주주로서 세계경제에서 받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9개의 자회사를 통합하기도 하였다. 농업분야에서는 7개 농업 부처를 통합하여 생산과 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카즈 아그로(KazAgro)가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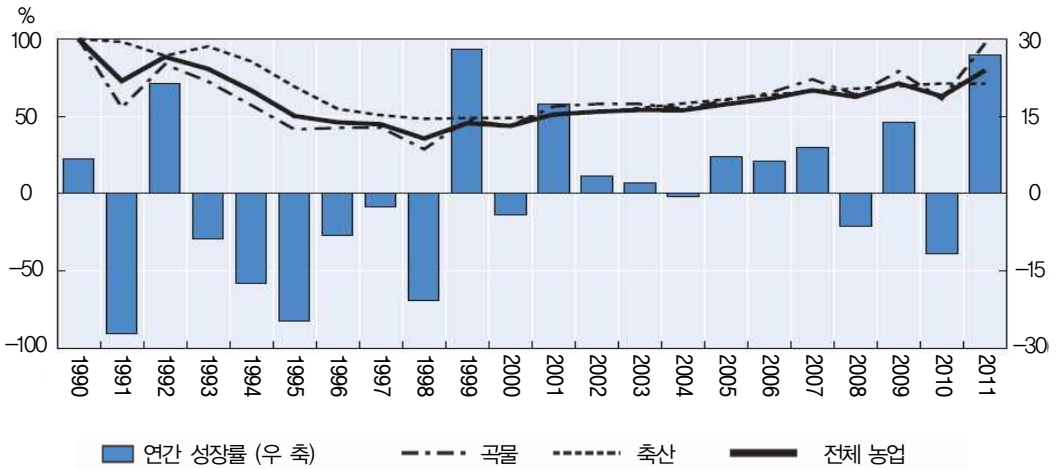
2. 농업생산

카자흐스탄은 세계 6위의 밀 생산국으로 곡물산업이 전체 농업생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임정빈 2010). 밀 산업이 강세를 보인 것은 1954~1960년 소련의 '미개간지 정책(The Virgin Programme)'의 영향으로,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강수량이 적고 강풍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이 힘든 남부 스텝지역까지 밀 농업을 확산시켜 식량난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2013년 기준 카자흐스탄 전체 농업생산에서 재배산업 55%, 축산업 44%, 농업서비스가 0.3%를 차지할 만큼 곡물을 포함한 작물생산은 여전히 카자흐스탄의 주요 생산 분야이다.[12] 2000년 이후 카자흐스탄의 농업 성장률은 가변적이지만 곡물과 축산업은 연간 15%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발전하고 있다<그림 4 참조>.

카자흐스탄의 2012년 농업생산량은 밀(약 980만 톤), 우유(약 480만 톤), 감자(약 310만 톤), 보리(약 150만 톤), 수박(약 115만 톤) 순이었고, 농업 품목별 생산 가치는 우유(약 13억 달러), 쇠고기(약 10억 달러), 밀(약 9억 달러), 감자(약 3억 9,000달러), 양고기(약 3억 4,000달러)순이었다.[13] 이는 품목별 가격이 반영된 결과로서 쇠고기의 경우 적은 생산량에 비해 높은 생산가치가 있는 반면, 밀과 감자는 실제 생산량은 높지만, 통

10) 후에 이 두 기구는 National Welfare Fund Samruk-Kazyna로 통합.
11) 사회프로그램 개선, 인적자본개발, 경제다각화전략.
12) ASTANA (2013).
13) FAO Stat(2012).

그림 4 1990-2011년 카자흐스탄 농축산물 생산 추이



자료: OECD (2013).

화 환산가치가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소비 가용성이 가장 높은 식품은 밀, 우유, 해바라기씨유(油), 설탕, 감자 순이었다.

2.1. 곡물류

카자흐스탄의 주요 농업생산 품목은 지역에 따라 구분된다. 북부 지역에서는 밀을 비롯한 곡물 생산이 주를 이루고 중부지역은 목초지와 사막이 대부분으로 축산업이 압도적이다. 특히 북부 스텝지대인 세 지역(North Kazakhstan, Kostanay and Akmola)에서는 곡물이 주로 재배되며 카자흐스탄 전체 농업생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그림 5 참조>. 동부지역(Pavlodar, East Kazakhstan and Almaty)에서는 유지작물이 주로 생산되고, 면화는 남부지역에서, 쌀은 키지롤다(Kyzylorda)지역에서 재배되는데 두 지역 모두 신다랴 강(Syndarya River)의 관개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알마티주(Almaty州)는 관개농업과 남부의 강수량 풍부지역을 바탕으로 혼합된 농업 양상을 보인다. 밀 생산량은 강수량이 일정하고 비옥한 토지가 분포해 있는 북부지역이 남부지역보다 평균 2~3배 많다.

2012년 곡식작물(쌀, 콩 포함) 재배면적은 전체 작물 재배면적 중 75%로 가장 높았고, 사료곡물의 경우 13%, 유지작물은 8%의 재배면적을 보였다. 밀, 곡물(벼, 보리 등), 유지작물, 쌀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6~2011년 밀, 곡물, 유지작물의 경우 10% 이상의 생산량을 보인다<표 3 참조>.

그림 5 2008~2010년 카자흐스탄 지역별 농업 특색

자료: Statistics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11).

표 3 주요 농작물 재배 면적

단위: 천 ha

연도	전체	곡류	유지작물	해바라기 씨	면화	감자	채소	멜론	설탕 무	감자	사료작물
2009	21,424.9	17,206.9	1,186.1	723.0	139.8	170.3	110.6	52.4	10.6	4.0	2,535.8
2010	21,438.7	16,619.1	1,748.1	869.3	137.2	179.5	120.3	63.3	11.2	1.6	2,555.6
2011	21,083.0	16,219.4	1,816.2	954.5	160.6	184.4	128.7	67.7	18.2	1.2	2,484.3
2012	21,494.8	16,244.0	1,842.7	791.2	147.8	189.8	128.0	81.7	19.1	1.3	2,840.3

자료: OECD (2013).

2.2. 축산업

카자흐스탄의 북부와 남부지역은 곡물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중부지역은 사막과 목초지가 많은 지형적 특색으로 축산업이 발달하였다. 축산업은 2013년 기준 전체 농업의 44%를 차지할 만큼 곡물산업과 함께 농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다. 전통적으로 카자흐스탄의 축산업은 양, 낙타, 말, 소 목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960~1970년 소련의 축산업 발전 정책에 의해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 독립 이전에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양모와 모피 생산은 1990년대에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육류와 우유, 계란 생산은 1990년대 후반에 증가하였다. 2010년에는 육류(소, 돼지, 양, 염소 및 가금류 기준)[14] 생산량이 93만 5,000톤으로 2000년 대비 4.2%의 성장률을 보였고, 특히 가금류에서 12%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계란과 우유 품목에서는 2000년

대비 2010년 생산량은 계란이 8.2%, 우유 3.7% 증가하며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고 특히 2007년 이후에는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표 4 참조>.[15]

표 4 2009~2013 축산분야 품목별 생산량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육류(천 톤)	794.1	834.4	838.1	844.7	871.0
소	396.1	406.8	392.8	373.5	383.5
염소	135.0	142.9	149.5	153.8	156.4
돼지	106.6	103.0	112.4	103.3	99.9
가금류	79.4	103.0	102.0	123.1	135.8
우유 (천 톤)	5,303.9	5,381.2	5,232.5	4,851.6	4,930.3
계란 (개수)	3,306.4	3,720.3	3,718.5	3,673.4	3,896.0
양모 (천 톤)	36.4	37.6	38.4	38.4	37.6

자료: Astana (2013).

3. 농업정책

독립이후 카자흐스탄의 농업 경제는 농업지원제도가 사라지고,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면서 농산물 부문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 농업부문에서는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였고, 농업생산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자 카자흐스탄 정부는 토지 및 농장의 사유화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농가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2000년대 초반에는 '미개간지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밀 생산 장려정책이 사라졌고, 기존에 곡물을 재배를 했던 1,900만ha의 토지는 황폐화 되었고, 집단 농장 형태로 사육했던 축산업 또한 1990년 대비 생산량이 20% 감소하는 등 곡물 및 축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농축산물 생산량은 1990년대 비해 절반으로 감소한 이후 2000년대 초부터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하락추세이다.

14) 2013 FAO year book.
15) 2000~2008년 수치는 〈표 4〉 내용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품목별 생산량은 Agency on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ASTANA)(2013). *Kazakhstan in Figures 2013.* 참조.

3.1. 농업생산 구조 개혁

3.1.1. 토지소유권 및 농가구조 개혁

카자흐스탄의 농업경영주체는 농업회사(Agricultural enterprises), 전업농가(Individual farm), 생계형 농가(Households farm)로 구분할 수 있다. 농업회사란 농업경영에 대해 복합적인 영농을 맡고 있는 법인으로서 농업관련 주식회사, 지주회사 등 전국단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업농가는 일반적으로 농산물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영농형태이며 생계형 농가는 직업은 별도로 있으나 자가소비를 위한 소규모 영농 형태를 말한다(박평식 2009).[16] 기존 집단 농장의 토지와 소유권 개혁은 농가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에 집단 농장형태(Collective farms)에서 출현한 농업 운영체는 1990년에는 5,000개 미만이었으나 2012년에는 18만 8,616개로 늘었고 그 중 3분의 1인 6,197개는 평균 8,000ha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농업회사(Agricultural enterprises)'가 되었다. 전업농가는 18만 2,419개로 평균 270ha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농업회사와 전업농가를 제외한 농촌지역 생계형 농가는 200만 가구 이상이며 평균 0.13ha의 토지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 농업회사의 수는 총 5,443개로 전체 농업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업농가는 17만 193가구, 생계형 농가는 224만 8,000가구로 각각 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한다<그림 6 및 표 5 참조>.

3.1.2. 1990~1993년: 토지 및 농가의 법제화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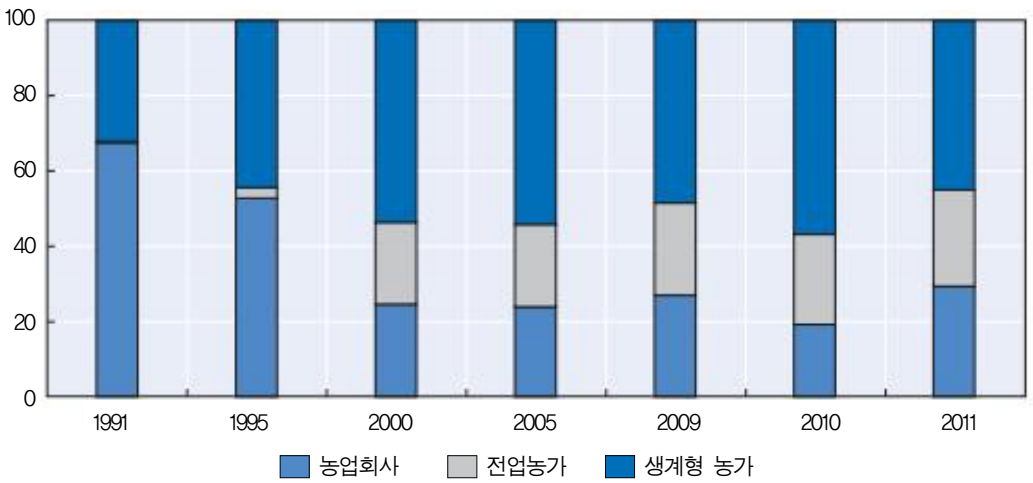
카자흐스탄 정부는 1990~1993년 토지개혁의 첫 시도로 1990년 '소작농업법(the Law on Peasant Farming)', 1991년 '카자흐스탄토지법규(the Land Cod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와 카자흐스탄 '토지개혁법(the Law on Land Reforms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토지세법(the law on Land Taxes)'을 채택하였다. 이후 토지소유권은 국영화 되고 지방정부가 토지를 관리하게 되었으며 전업농가 및 생계형 농가에게는 토지에 대한 종신 권리(life tenure right)가 부여되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1994~1995년 두 번째 토지 개혁으로 대통령 법령에 따라 토지임기에 대한 권리(land tenure right)를 사고 팔 수 있게 해주어 사실상 토지 거래가 가능해졌다. 농업인들과 기타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조건부 토지공동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었고 이전 집단 농가의 자산이 배분되었다. 이에 따라 자발적인 협동 생산체제, 합작 주식회사 등의 협력체가 구성되고 독립적 전업농가가 형성되었다.

16) 카자흐스탄의 농업경영체는 농업회사(agricultural enterprises), 전업농가(peasant farm), 생계형농가(households farm)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본고에서는 'Individual farm'을 전업농가로 해석하였음.

그림 6 1991~2011년 농가별 농산물 생산 비율

단위: %



자료: OECD (2013).

표 5 농가 형태별 가구 수

단위: 개/가구

연 도	전체	농업 회사		전업농가	생계형 농가
		국영	비 국영		
1991	9,274	2,229	3,712	3,333	1,949
1995	36,285	1,405	4,095	30,785	2,175
2000	81,078	74	4,631	76,373	2,181
2005	161,962	65	4,919	156,978	2,133
2009	175,636	35	5,408	170,193	2,248
2010	176,822	6 493[2]		170,329	–
2011	188,616	6 197[2]		182,419	–

자료: OECD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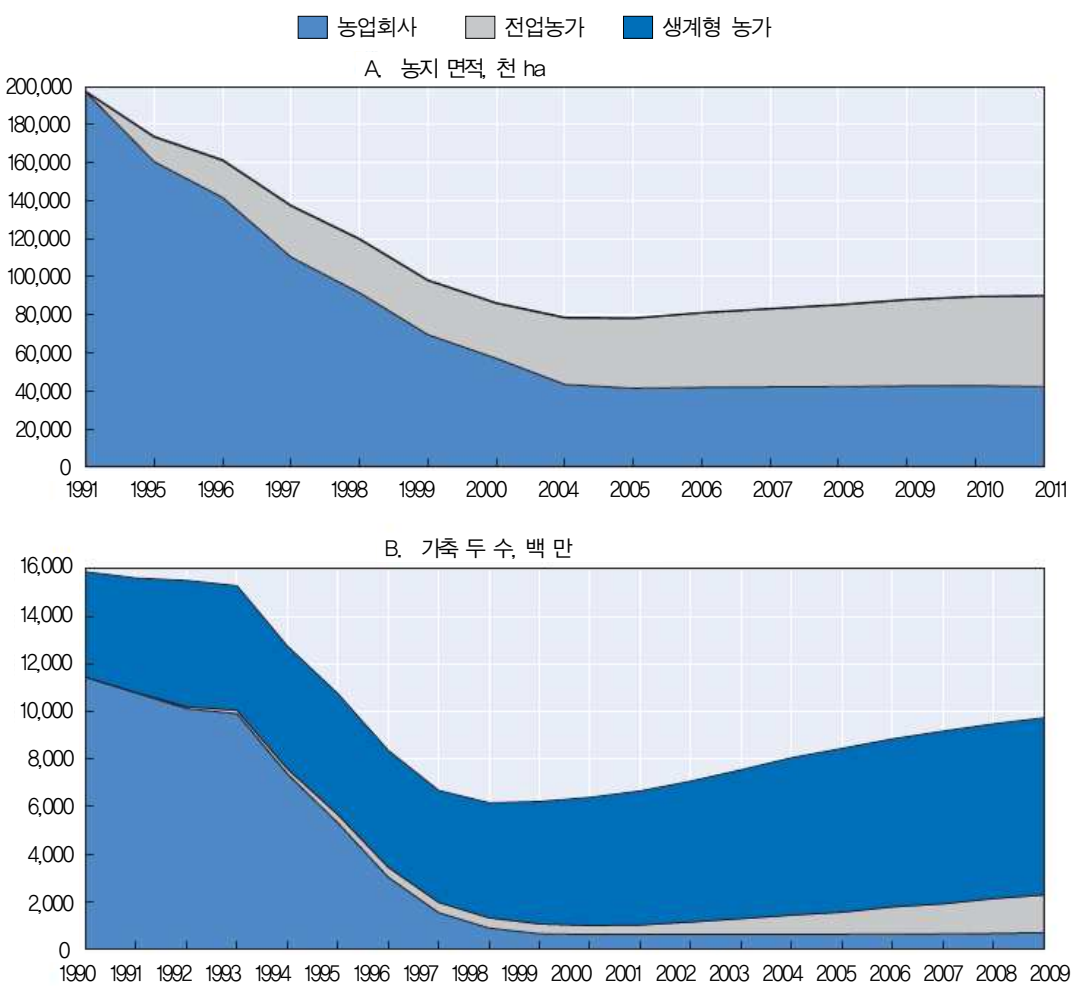
3.1.3. 1995년: 대통령 법령에 따른 민영 토지소유권의 도입

1995년에는 카자흐스탄 대통령 법령에 따라 민간토지소유권이 인정되었으나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였다. 동 법령은 민간의 토지 이용권을 99년 미만으로 하는 농경지 국유화 원칙과 농업회사의 토지분배원칙을 정립하였다.

3.1.4. 1998~2003년: 토지와 구조 개혁의 가속화

1998년에는 파산했던 집단 농업회사(Collective agricultural enterprises)에 대한 금융구제 정책이 시작되었다. 2001년 '카자흐스탄 토지법(Law On Land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에 따라 토지 임대 기간은 99년에서 49년으로 줄어들었으나 2003년 '토지법규(Land Code)'가 제정되기 전까지 토지권 전대차(Sub-leasing)의 적절성 여부에는 혼란이 있었다. 2003년의 토지법규는 토지를 매매를 포함하여 완전한 재산권으로서의 민간토지소유권을 인정하였다. 이는 농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고, 전업농가가 늘어나고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는 토지 매매시장이 생겨나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864만 5,000ha가

그림 7 농가 형태별 생산 요소 변화



자료: OECD (2013).

구매되었으나, 2008년 이후에는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그 비율이 급격이 줄어들었다.

카자흐스탄은 토지임대 방식이 유연하지 못하고 토지시장이 비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토지 유동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토지자원관리국(Agency on the Management of Land Resources)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 농경지 용도로 지정된 토지 중 1%만이 민간 소유이고 나머지는 토지는 정부가 임대하는 방식으로 국유화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토지세와 세제 혜택 등 유리한 점이 더 많다.

농가 구조의 개혁은 경작면적과 가축 수 등 농업생산 요소의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 농지 면적의 경우 1990년 26만 1,000ha에서 2010년 30만 1,000ha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농가가 농경지 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었다. 반면 농업회사와 전업농가의 농경지 이용 비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전업농가는 1990~1992년 전체 농경지의 0.6%를 차지했으나 2009~2011년에는 52%로 증가하였다. 가장 급격한 변화가 있는 분야는 축산업 분야인데, 1990년대에 농업회사는 보유 가축 수(Livestock inventory)가 거의 없었고 생계형 농가가 축산업의 주요 생산 주체가 되었다. 생계형 농가는 1990~1992년에 전체 가축 수의 3분의 1 이하를 차지하였으나 2007~2009년 80%로 증가하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전업농가에서도 가축두수를 빠르게 늘리고 있으며 점차 축산업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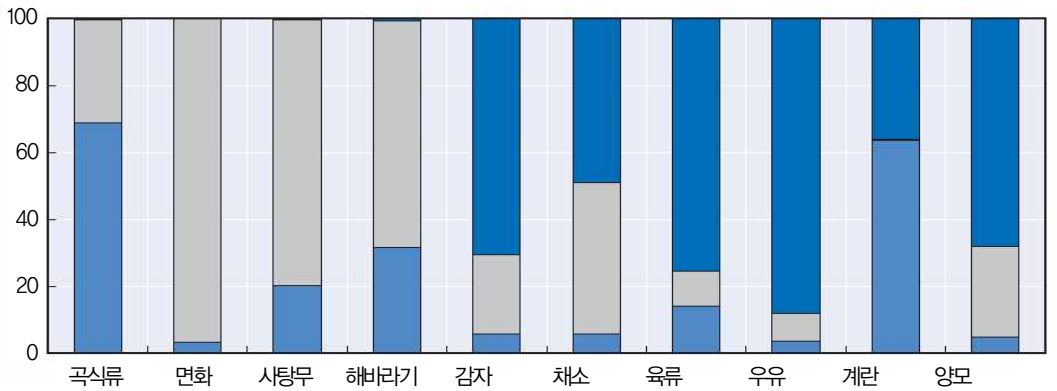
3.2. 농업생산 구조의 변화

카자흐스탄 농가 형태의 변형과 생산요소의 변화는 대규모 농업생산과 소규모 농업생산의 구조를 바꾸었다. 1990년 전체 농업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던 농업회사는 2011년 생산의 3분의 1로 감소한 반면 소규모 생산(전업농가, 생계형농가) 주체는 동기간에 전체 농업생산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농가 생산구조 변화는 특정 농축산물의 생산 비중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2011년 기준 농가 구조와 농업생산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업회사는 곡물과 계란 품목에서는 각각 69%, 64%로 가장 높은 생산량을 보였고, 전업농가는 면화생산의 97%, 해바라기씨의 68%, 사탕무의 80%의 생산 비중을 차지했다. 축산, 원예 분야는 생계형 농가에 집중되었으며 우유의 88%, 육류의 76%, 감자의 71%, 양모의 68%, 채소 생산의 49%를 차지하였다<그림 8 참조>.

이렇게 농가 형태별 생산품목에 상이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농가 형태와 토지구조가 생산 품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업회사는 전업농가에 비해 더 많은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목초지가 거의 없었던 반면 전업농가

그림 8 2011년 농축산물 품목별 농가 생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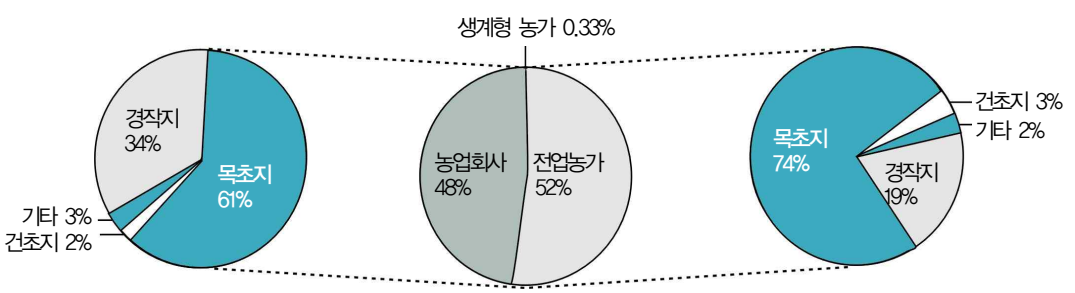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2013).

는 이용할 수 있는 경작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경작지의 4분의 3은 목초지로 되어있어 양모, 우유, 육류 생산이 발달한 것이다<그림 9 참조>.

그림 9 농가별 토지 사용



자료: OECD (2013).

이러한 생산구조는 생산구조에 따른 지역적 차이로도 설명될 수 있다. 소규모 농가는 알마티(Almaty), 남부지역(South Kazakhstan)과 키즈롤라(Kyzylorda)주와 같은 남부 및 남동부 지역에 집약되어 면화, 과일, 채소생산 및 혼합농업을 주로 하고, 농업회사와 전업농가는 북부 지역에서 자본집약적인 기술과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여 곡물 및 대규모 축산농가, 유지작물 농장을 운영한다.

3.3. 농업정책의 변화

카자흐스탄 독립이후 처음 10년간 농업 정책의 주요 목적은 '토지개혁', '농가구조 조정', 농업 금융과 지원 시스템을 통한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세 가지로 요약된다. 2000년대부터 중·장기 농업 프로그램이 소개되었고, 이 세 가지 목적은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2000~2002년 농업발전프로그램(Agricultural Development Programme for 2000~2002)'은 농업 경쟁력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였다. '2003~2005년 국가 농업 및 식품 프로그램(the State Agricultural and Food Programme for 2003~2005)'에서는 식량 안보 증진, 농공업 복합단지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등 카자흐스탄 농업정책의 세 가지 목적은 일련의 정책에서 재차 강조되었다. '2005년 농업법(2005 Agricultural Law)'의 채택으로 농업정책의 범위는 환경적·사회적 차원으로 늘어났다. 이 법은 농업과 농촌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사회적·기술적 기반시설의 개선과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까지 정책 저변을 확대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승인 협상이 진행될 당시, 정부는 자유개방시장 환경에 적합한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등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카자흐스탄 농업책은 국제정세를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2010~2014년 농공업 복합단지 개발 프로그램(Development Programme of Agro-Industrial Complex for 2010~2014)'은 수출 증진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3.3.1. 시장 경제로의 발전과 농업 투자 현황

1992~1994년 정부 중심의 경제정책이 종료되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당시 카자흐스탄의 농업 투입 가격은 가격보다 두 배 가량 더 높아졌고, 이는 농업부문 교역의 급격한 하락을 야기하였다.[17] 이러한 농산물의 상대적 가격 변화로 인해 1990년대 초반에 농업회사는 큰 부채를 지게 되었고 부채위기는 1990년대 후반의 농업분야를 위협했다. 1990년대에 주요 작물가격은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고, 가축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하였다. 2000년 이후, 시장 환경이 호전 되었을 당시에도 농업에 대한 투자는 다른 산업에 비해 여전히 미진했고, 고정자본투자의 3분의 2이상은 북부지역의 밀 생산과 곡물생산 분야에 집중되었다.

3.3.2. 농업정책 개혁의 주요 단계

독립 이전 시기 카자흐스탄의 농업은 농산물의 수확, 관리 및 투입재의 비용이 매우

17) Agency on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에 따르면 1992년에 농업 투입가격은 18배, 산출 가격은 10배 증가했음.

높아 정부의 지원책에 의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1991년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OECD 농업생산자지원 규모치(Producer support estimates)는 높았으나 1990년대 초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유사하게 카자흐스탄 역시 정부 지원금에 의존적인 농업의 형태였으나 가격 자율화가 시행됨에 따라 농업 분야의 가격경쟁력을 잃고 마이너스 생산을 기록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의 농업정책은 1992~1997년 '초기 구조 개혁과 새로운 정책 기구의 출현', '1998~2002년 농업안정화정책과 부채조정'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경제다각 전략으로서의 농업 발전'의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 1992~1997: **초기 구조 개혁과 신(新)정책기구의 출현**

1990년대의 주요 정책은 농지개혁과 집단 농장의 민영화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미시경제 안정화와 시장경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1990년대 초반 농업 투입시장의 부분적 가격 자율화는 투입재 가격을 급격히 올렸으나 차츰 정부 시스템이 안정되면서 보다 유연한 구매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당시 교역 정책 또한 국내 식품공급의 안정화와 식품가격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적으로 다소 제한적인 수출입제도가 시행되었다.

(2) 1998~2002: **농업안정화정책과 부채 조정**

카자흐스탄은 1996~1997년에 경제성장을 보였으나 1998년 러시아 경제위기 당시 긴축 통화 및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등 미시경제 안정과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 당시 농산물 생산량은 1990년 이후 가장 낮았고, 농업지원정책은 제한적이었다. 농업생산 하락세는 1999년에 들어서면서 극복되었으나, 대안적 시장경로가 없었고 제한적인 금융 환경과 불안정한 규제정책으로 인해 농업생산자는 실질적 이익을 얻기 힘들었다. 1995~1997년, 금융구제와 은행파산 이후에는 농업회사 구조재편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정부 부처인 '카자흐스탄농업금융(KazAgro Finance)'이 설립되어 농기계와 장비 임대를 통한 농업기술 향상을 촉진했다. 또한 2001년에는 농업 · 농촌신용제도가 마련되고 농업신용회사(The Agrarian Credit Corporation)가 설립되어 전국단위의 신용 파트너십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3) 2003**년~현재: 경제다변화정책으로서의 농업 발전**

'2003~2005년 국가 농업 및 식품 프로그램'은 카자흐스탄 농업정책의 전환점이 되

었다. 이는 자원산업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고자하는 경제다변화정책의 일환으로, 농업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이 적극 시행되었고 그 결과 농업부(The Ministry of Agriculture)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2.5%에서 2006년 6.5%로 증가하게 되었다. 농업장비 임대, 비료와 연료 구매 보조 등 농업생산을 장려하자 밀 생산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농업회사와 전업농가는 세금면제 혜택도 받았다. 2003년에는 새로운 토지법(the new Land Code)에 따라 49년간의 토지임차제도가 사라지고 완전한 농지사유화가 도입되어 농지재산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또 다른 획기적인 발전은 2005년 '농업과 농촌지역 발전 규제에 관한 법(the Law on State Regulation of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Territories)'의 채택이었다. 이것은 농업정책의 원칙과 핵심 정의를 명시한 첫 번째 체계로서 정책 형성과 시행, 지원 및 제재조치를 하는 각기 다른 정부기관 차원에서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했다. 동법은 현재까지 카자흐스탄의 농업정책 시행과 형성을 이끄는 기본 법률 문서로 남아있다.

'2004~2010년 농촌지역개발프로그램(Programme for Development of Rural Territories for 2004~2010)'에서는 처음으로 농촌개발과 사회 이슈를 정책에 반영하여 농촌특별지원 예산을 할당하였다. 이는 농촌 기반시설의 재건설과 혁신,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개발 등 농촌 지역에의 정착 개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다. 동 프로그램으로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작되었고, 더 나은 경제적 ·환경적 조건으로 농촌거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었다.

2008~2011년에는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농업분야 회복세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있었으나, 농업발전정책에 따라 정부지원투자사업이 기반시설과 대규모 농업생산 및 가공분야에서 급증하였고, 지역 차원에서는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투자가 활성화되었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세계 농업시장의 가변성으로 인한 사회적 타격을 줄이고 식량가격 적정성(Food affordability)유지하고자 식품가격을 제어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지방 당국은 식품가격에 대한 행정 감시를 강화하게 되었고 지역별 식품안정화를 위한 펀드를 만들었다.

4. 농식품 교역 현황

1990년 카자흐스탄은 약 300만 톤의 곡물, 34만 톤의 육류, 1억 4,500만 톤의 계란을 소련 공화국 국가에 수출하였고, 그 외의 국가에는 주로 면화를 수출하였다. 당시 면화

는 카자흐스탄 농업 수출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미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EU에 이은 세계 6번째 밀 수출국으로 2000년대 중반에는 밀 수출로 농업교역량이 증대 되었다. 1995~1997년과 2008~2010년을 비교했을 때 밀의 연간 생산량은 거의 2배, 연간 가치로 환산하면 약 3배 증가하였다. 수출은 카자흐스탄의 소득발전과 자국 통화의 강화, 교역 성장에 기저가 되었으나,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0년대 중반 실질적인 농식품 분야의 수입국이 되었다<그림 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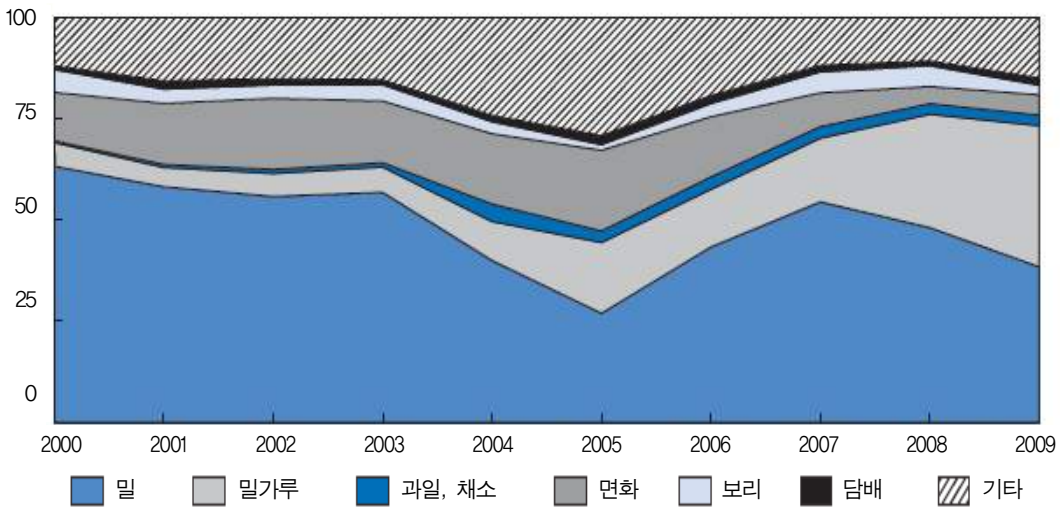
그림 10 1995~2010 농식품 교역 현황

자료: OECD (2013).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전체 교역에서 에너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늘어 농식품 부문의 교역 비중이 줄었고, 2008~2010년 기준 농식품 분야는 전체 수출의 4%, 수입의 9%에 불과했다. 2000~2009년 농식품 품목별 수출 비중을 보면, 품목별 비중은 생산량이 가변적이라 다소 유동적이지만 밀과 밀가루가 주요 수출 품목이고 이는 전체 농업 수출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에 달했다. 면화 수출은 2003~2005년에 증가하였으나 2005년, 2010년에 감소하였고, 다른 농업 수출 품목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육류, 계란, 감자는 1990년대에 모두 감소하였고 카자흐스탄은 감자, 계란, 육류, 유제품의 실질적 수입국이 되었다<그림 11 참조>.

농식품 교역의 흐름은 수출대상국이 달라지면서 1995~2010년 급격히 변화하였다. 1995~1997년 카자흐스탄 수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던 러시아 연합이 2008~2010년 전체 수출 비중의 7%로 급감하게 되었고,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규모

그림 11 2000~2009년 농식품 품목별 수출량 변화 추이



자료: OECD (2013).

가 증가하였다. 2008~2010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중앙아시아 5개국이 카자흐스탄 농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농식품 수입 분야는 식품가공, 유제품, 설탕, 음료 곡류, 유지류 등으로 다양하다. 카자흐스탄이 주로 식품을 수입하는 나라는 CIS국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서 전체 수입량의 52%를 들여오고 있으며, 육류 수입은 주로 가금류로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2010년 카자흐스탄은 미국에서 약 8,800만 달러에 달하는 10만 8,115톤의 육류를 수입하였고, 러시아에서는 1,757톤을 수입하였다.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 1996년 카자흐스탄은 56%를 러시아에서 수입하였으나 2010년에는 전체 양의 41%를 키르기스스탄에서 러시아에서 33%를 수입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주요 과일 수출대상국이다. 수입대상국의 변화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후반에 현저히 드러났다. EU가 차지하는 부분은 전체 수입의 25%만큼 줄어들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의 비중이 그만큼 증가하였다. 이전에는 주로 EU에서 수입했던 가공식품을 다른 국가에서도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에서 기인한다. 1990년대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질 좋은 가공식품 및 음료의 생산이 힘들었으나, 시장경제체제 도입 이후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가 식품가공업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고 카자흐스탄 보다 비교우위가 있어 카자흐스탄은 가공식품을 이들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다.

5. 시사점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는 농공업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등 농업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2013년 대비 13% 증가한 약 8억 9,500만 달러가 농업에 투자되었다.[18] 그러나 작은 시장규모, 외부 시장으로의 낮은 접근성, 취약한 가치사슬, 숙련된 노동력 및 장기 투자 부족 등으로 카자흐스탄 농업 발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카자흐스탄의 농업의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의 장기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럽부흥은행은 카자흐스탄 소규모 기업의 민영화 정도, 가격 자유화, 무역 및 외환 시장의 발전은 높이 평가했으나, 시장경쟁정책, 금융 분야, 기업구조개편부문은 다소 비판적으로 평가했다.[19] 교통 시설 구축과 물류망 확보, 수자원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주민의 교육 및 정보 공유도 확대하여야 한다. 농업부문 정부 부처 개혁도 해결해야할 과제 중 하나이다.

2008년 'OECD 유라시아 경쟁력강화프로그램(OECD Eurasia Competitiveness Programme)'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카자흐스탄 경쟁력프로젝트 (Kazakhstan Regional Competitiveness Project)'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을 강화하고, 소규모 생산자가 시장실패를 극복하여 지역의 생산 및 공급 과정(Supply Chain)에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소규모 농가는 대규모 농가에 비해 공급 과정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시장경쟁력이 떨어져 본래 생산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농업 교육, 연구, 개발 및 농업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토지 매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낮다. 카자흐스탄에서 농업협동조합 제도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나, 협동조합을 통하여 소규모 생산자는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생산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과 지원책을 통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주도의 농업 발전보다는 민간회사와 농업협동조합 중심의 발전이 카자흐스탄 농업의 장기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18) AZER NEWS. (http://www.azernews.az/region/77170.html).

19) EBRD 전환기 지표는 9가지 영역에서 1등급(중앙계획경제와 거의 다르지 않은 경우)부터 4+등급(선진공업국가 수준의 기준 및 실행) 척도를 매겼고 2010년 기준 카자흐스탄은 4등급을 받았음. '소규모 민영화' 와 '가격자유화' 부문이 4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업 구조개편이 2점으로 가장 낮았음.

참고문헌

박평식 외. 2009. “식량기지 확보를 위한 카자흐스탄 농업투자 환경”.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제21호.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임정빈. 2010. “카자흐스탄의 농업상황과 WTO 가입 이후 발전 전략”.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제22호.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2013. OECD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Kazakhstan 2013. OECD

Agency on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ASTANA). 2013. Kazakhstan in Figures. 2013. ASTANA.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2013. FAO Statistical Yearbook 2013 World Food and Agriculture. 2013. FAO.

참고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www.terms.naver.com)

워터저널 (www.waterjournal.co.kr)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

세계은행 (www.worldbank.org)

카자흐스탄 통계청 (http://kyzylorda-stat.kz)

OECD (www.oecd.org)

FAO (www.fao.org)

Geographic.org (http://www.geographic.org)

The Astana Times (http://www.astanatimes.com)

AZER NEWS. (http://www.azernews.az/region/77170.html)

Country STAT (http://www.countrystat.org)

Wikipedia (www.wikipedia.org)